

불교건축문화재를 통한 보존공사경향 연구

조 현 정

(東京芸術大学, 박사과정)

김 왕 직

(명지대학교 조교수, 공학박사)

주제어 : 불교건축, 목조건조물,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수리, 보존, 복원, 현상변경

1. 서론

1-1. 연구목적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불교관련 문화유산은 상당수이며, 불교건축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한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도 불교건축물이다. 탑과 부도·금당을 비롯한 건조물들에는 불교를 토대로 시대적인 특징·양식과 건축기법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당시의 미학과 건축술등을 알 수 있다. 불교건축물은 창건 이후 현재까지 대부분 같은 취지와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시대적·지역적 분포가 전국적으로 폭 넓게 나타나며, 용도의 변화가 거의 없어 단위건물의 보존방법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대상이다.

수많은 불교문화유산이 현재까지 유지·보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AD 372년 고구려의 불교공인 이래 현재까지도 종교의 대상으로 존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자연재해·전쟁·국가통치이념의 변화 등으로 사라진 불교건축물도 있으나 현재까지도 상당수가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신성한 종교대상

으로 재건과 증창·수리를 통해 유지관리가 되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왕조의 흥망성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궁궐이나, 시대와 거주주체에 따라 변화가 많은 살림집보다는 외부 영향을 덜 받고 유지되어 올 수 있었다. 물론 배치와 건축양식의 변화는 있었지만, 불교라는 커다란 개념적 틀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정한 공간 안에서 다양한 조영활동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더욱이 그중 현대에 이르러 문화재로 지정된 불교건축물은, 단순히 종교건축물로서의 기능을 초월하여, 역사적·예술적·종교적·학문적 가치를 포함한 문화유산의 개념이 더해져 보존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불교건축에 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이 더해지기 시작한 시기인 1900년대 초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불교건축물의 보존공사경향과 이러한 경향에 영향을 준 보존개념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2. 연구사

본 연구에 앞서 연구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했다. 건조물문화재보존과 관련한

연구가 그 하나이고, 나머지 하나는 불교건축에 관한 연구이다.

건조물문화재보존과 관련한 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관심이 급증했고, 최근에는 빈번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건조물문화재의 제도와 정책은 물론, 일제시대의 건조물보존 및 보존 역사에 대한 연구, 근현대의 문화재라는 개념 성립에 대한 연구, 근대부터 현대까지 건조물문화재의 보존역사에 관한 연구, 건조물 보수공사의 시공에 관한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¹⁾

불교건축에 대한 연구는 매우 광범위하게 오랜 시간동안 연구되어왔다. 배치론, 공간론, 교리와 사상적 접근, 단위건물의 목구조론, 불

교건축의 조영활동에 대한 연구 등 매우 다양하다.²⁾

이와 같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불교건축물만을 대상으로 보존에 대하여 진행된 연구는 없었다. 단, 건축물의 보존방법과 과제를 주제로 포괄적인 연구가 있었다.³⁾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현재 불교건축 보존공사의 원인과 보존방법·공사주기·공사비용 등을 확인하고, 보존공사와 관련한 개념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고찰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한다. 더불어 본 논문은 불교건축문화재의 보존사례를 통해 목조건축문화유산 보존의 방향성 설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주요점을 두고자 한다.

1-3. 연구방법과 범위

불교건축문화재 중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조물 총 80동을 대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⁴⁾

연구방법은 190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이루어진 공사 관련 기록과 관련 문헌을 근거로 연구한다. 1900년 무렵을 기준 시점으로 잡은 것은 문화를 비롯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문화충격을 받은 시기로서, 문화재라는 개념 형성의 초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불교건축도 종교적 공간에서 불교문화유산으로 개념이 변화하기 시작한 시기인 것이다.⁵⁾

1) 건조물문화재 보존과 관련한 건축적, 제도적, 방법적 접근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학위논문으로는 김한승, 목조건축 문화재 보존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 1997 / 이명선, 韓國における建築文化財成立過程の研究, 東京大 박사, 2003 / 강현, 일제강점기 건축문화재보존연구, 서울대 박사, 2005 / 조현정, 한국 건조물문화재 보존사에 관한 연구-1910년 이후 수리된 목조건조물을 중심으로, 명지대 석사, 2005

소논문으로는 신영훈, 장기인선생 회갑기념논문집-일정기의 문화재보존사업록, 장기인선생 회갑기념논문집 출판기념회, 1976 / 김홍식, 민족건축론-한국건축사 연구의 반성, 한길사, 1987 / 김왕직·이상해, 목조 건조물문화재의 보존이론에 관한 연구-일본 건조물문화재의 수리사례를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v.11 n.3, 2002.9 / 김동욱, 한국건축사연구1-20세기 건축사학의 전개, 발언, 2003 / 김봉건, 한국건축사연구 2-정책과 제도, 발언, 2003 / 양윤식, 한국건축사연구 2-조사 및 기록보존, 발언, 2003 / 장헌덕, 한국건축사연구2-보존방법과 과제, 발언, 2003 / 강현, 關野貞과 건축문화재 보존- 한국건축문화재 보존과의 연관 관계를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제 14권, 2005 / 김재국, 1897~1945년의 문화재보존정책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 21권 7호, 2005.7 / 김재국, 1910~1965 건조물문화재 보수공사의 시공특징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v.15 n.1, 2006.3 / 우동선, 세끼노 타다시(關野貞)의 한국고건축 조사와 보존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 v.22 n.7, 2006.7

건조물문화재 보존의 법규와 관련한 연구로는 / 정문교, 문화재행정과 정책, 지식산업사, 2000 / 충북대, 한국 문화재보호법의 발전과정과 정비방향, 문화재청, 2002 / 오세탁, 문화재보호법원론, 주류성, 2005

2) 김봉렬, 불교건축 연구사, 한국건축역사학회 창립 10주년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국건축역사학회, 2001, p43~46. - 연구사 관련 목적이 다수 기재되어 있어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3) 장헌덕, 한국건축사연구2-보존방법과 과제, 발언, 2003

4) 연구대상에 관한 조사표는 논문 맨 뒤편에 첨부한다. 조사표는 문화재관리국의 문화재보수실적(1963~1987년), 문화재관리연보(1988~1999)와 문화재청의 문화재연감(2000~2006), 수리공사보고서, 실측보고서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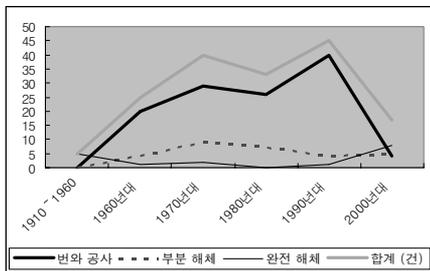
2. 불교건축문화재의 보존공사

2-1. 해체범위와 손상원인

대상이 된 총 80동의 건물은 최근 100년간 165차례의 해체공사가 있었다.<표4>⁶⁾ 그러나 이 수치는 보고서 기록을 통해 확인한 수치로 실제 공사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한다.<표1, 그림1>

[표 1] 시기별 해체범위

시기	번와 공사	부분 해체 공사	완전 해체 공사	합계
1910~1960	0	0	5	5
1960년대	20	4	1	25
1970년대	29	9	2	40
1980년대	26	7	0	33
1990년대	40	4	1	45
2000년대	4	5	8	17
계(건)	119	29	17	165
백분율(%)	72	17	11	100



<그림 1> 시기별 해체범위 그래프

165건의 공사에서 해체범위를 조사한 결과 번와공사는 총119건(72%)으로 가장 많았고, 부분해체공사는 총 29건(17%), 완전해체공사는 총 17건(11%)이었다. 시기별 해체범위는

5) 불교건축이 종교적인 기능의 공간에서 문화유산으로서의 인식공간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기 연구를 통해 참고할 수 있다. -이명선, 앞의 책, 1993, p.40 / 강현, 앞의 책, 2005-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련된 규제를 통해 연구된 바 있으며 당시의 사회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6) 본문 2-1절 맨 뒤에 조사표 첨부, 표4

번와공사의 경우 1960년대 이후 대체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90년 중반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하였다. 부분해체공사는 1960년대 이후 10년 단위로 4에서 9회의 공사가 있었다. 완전해체공사의 경우는 1960년대 이전과 2000년대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시대별 총공사는 1990년대 중반이후 하락하였다. 보존공사의 공종 중 목조가구의 해체공사를 제외한 기타공사는 크게 단청공사, 기단공사, 창호공사, 석축공사, 마루공사로 분류하였다.⁷⁾<표2>

[표 2] 불교건축공사범위 세부표

대분류	소분류	공사건수
번와공사	지붕↑	102
	연목↑	17
부분 해체공사	도리↑	4
	종량↑	1
	대량↑	1
	포부재↑	12
	평방↑	3
	창방↑	2
완전 해체공사	기둥↑	6
	완전해체	17
	단청·벽화	45
기타공사	기초·기단	30
	창호	13
	석축	11
	마루	9

소분류 설명

해체 공사	지붕↑ : 산자(개 판)이상 해체
	연목↑ : 연목(부연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 해체
	도리↑ : 도리 이상 해체
	대량↑ : 대량 이상 해체
	창방↑ : 창방 이상 해체
	평방↑ : 평방 이상 해체
	포부재↑ : 포부재의 일부 또는 전부 해체
	기둥↑ : 기둥의 일부 또는 전부 해체
완전해체 : 기초까지 완전해체	
기타 공사	단청·벽화 : 단청, 벽화 공사
	기초·기단 : 기초, 기단, 계단 공사
	석축 : 건물배면 석축공사
	창호 : 창호공사
마루 : 마루공사	

7) 기타공사는 해체공사와 겹치는 부분을 포함하면 더욱 많으나, 여기에서는 몇 가지 종류만 선별했다.

단청공사는 총 108건의 기타공사 중 45건에 이른다. 단청안료의 박락 또는 퇴락이 주요 원인이다. 단청안료의 퇴락·박락요인은 우수, 시간적 흐름에 따른 안료의 퇴색, 접착재료의 접착성 저하, 대기오염의 원인 등이 있다. 대기오염의 경우는 사찰보다는 도심의 문화재에서 볼 수 있다. 단청공사는 주로 퇴락된 기존 단청의 무늬와 색상을 조사하여 다시 채색하는 방법으로 공사가 진행된다.⁸⁾

단청공사 다음으로 많은 것은 기단, 계단, 기초부분의 공사이다. 총 30건 중 조사대상의 50%가 기단의 이완이나 변화가 원인이었고, 시멘트기단으로 변형된 것을 자연석 내지는 본래의 재료나 형태로 되돌리는 공사도 많았다.

기단에 시멘트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일제시대 무렵부터이다. 당시는 신재료라고 할 수 있는 시멘트를 보수재료로 거부감 없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현재 시멘트는 단순한 미관 저하는 물론 구조적으로도 기존부재들과 응력·인장력이 다른 접착성물질로서, 수분을 함유하는 성질이 있으며 기존 석재에 손상을 준다는 것이 밝혀져, 시멘트를 제거하고 기단의 줄눈을 맞추는 공사가 다시 이루어 졌다. 이러한 보존과학적인 이유 이외에 보존철학적인 면에서도 문화재가 갖고 있는 재료와 기술의 진정성(authenticity, 내지는 진실성-오센티시티, 이하 진정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어 현재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⁹⁾

8) 단청공사는 퇴색된 기존의 단청 문양과 색상을 조사하여 건립당초의 모습으로 다시 채색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그 이유는 승배의 대상으로서 장엄을 위해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단청문양을 조사하여 새롭게 채색하는 기법연구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재로서 갖고 있는 역사적인 흔적과 미를 위해, 기존의 문양과 색상을 찾기 어려울 때는 다시 채색하지 않고 내부는 그대로 두고 외부만 채색하거나 내·외부 모두 채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현재까지는 소수의 사례이다.

창호공사는 형태를 복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집이 기울거나 회전하면서 문틀이 맞지 않을 경우 공사를 하였다.

석축공사는 산지가람의 특성상 건물 배면에 석축을 쌓는 경우이다. 배수 및 산지 절토면과 관련하여 석축을 다시 공사해야하므로, 석축공사와 기단공사는 사찰의 지형과 배수에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선종의 영향을 받은 불교건축의 특징 중 하나는 산지가람이다. 대부분 산중턱 내지는 산을 등지고 절터를 잡아 배수와 우거진 수풀로 인해 건물의 손상이 초래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해체공사원인은 단청공사를 제외한 총 251건의 해체공사 중 공사원인의 기록이 있는 70건의 공사에 해당하는 106가지 사례를 대상으로 조사·정리하였다.<표3>

[표 3] 불교건축문화재의 해체공사원인

해체공사원인	공사원인
지붕	39
재료	16
부식	13
기울음 및 회전	13
노후화	12
벽과 창호	8
산지가람	5
부등침하	3
자연재해	2
화재	2
총계	113

[표 3]의 해체공사원인에 대한 설명을 부연하자면 다음과 같다.¹⁰⁾ 지붕이 원인인 경우가

9) 朝鮮建築會, 朝鮮古建築保存に關する座談會, 朝鮮と建築 10집 제5호, 1931, p.15
시멘트는 일제시대에 창덕궁 담장에 사용했던 사례가 있는데, 당시 붕괴를 방지하여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강한 소재라는 인식이 있었다. 이러한 인식이 당시 거리낌 없이 문화재 보존공사에도 응용되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10) <표3>은 본문 2-1절 뒤의 <표4>에서 공사원인의

39건(36%)으로 가장 많았다. 기와의 파손·이완·홍두깨흙과 알매흙 등의 절토로 인한 누수와 부식, 지붕 하중, 지붕곡의 변형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지붕의 누수는 부재의 부식(13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부식된 부재는 구조적인 역할을 다 해내기 어렵고, 결국로부터 이탈되는 경우도 있다.

건물의 기울음 및 회전은 13건으로 건물 전체가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거나, 한쪽방향으로 건물이 기울어진 경우이다. 이러한 원인은 목재자체의 특성으로 인한 것도 있고, 부분적인 해체수리공사로 인한 것도 있다.¹¹⁾ 이외에 노후화(12건)는 건물이 지어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목재가 수축하면서 결구부분이 이완되어 구조적 결함이 생기는 경우, 혹은 기단 이완이 이에 해당된다. 재료(10건)는 중간보수과정에서 강도가 낮거나 규격이 다른 목부재나 기단공사에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과거의 보수공사부분을 전통적인 기법 내지는

부분을 따로 정리한 것이다. 단종의 작은 공사들을 모두 포함하면 실제 공사의 수는 더욱 많을 것이나, 여기에서는 보고서등의 자료에 보수공사 기록이 있는 공사만을 선택한 것이다. 해체공사원인은 보존공사가 있었던 불교건축문화재의 수리공사보고서를 참고하였다. 해체공사원인에 대한 용어설정은 수리공사보고서마다 비슷한 공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어가 제각각이었다. 또한 지붕공사를 예를 들자면 지붕에 이상이 발생하여 공사를 했다는 것은 동일하나 그 원인을 일정한 통일성이 있게 묶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어느 한 가지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즉 각각의 건물이 처해진 상황과 환경, 재료, 지어진 시기, 건축기법, 현재까지의 관리 방법 등이 모두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부위와 범위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원인을 모두 기재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또한 손상원인에 한 가지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지면에서는 공사원인의 의미가 비슷한 그룹으로 모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표4>의 공사원인부분의 낱말은 <표3>의 다음에 해당한다.

· 지: 지붕, 부: 부식, 기: 기울음 및 회전, 노: 노후화, 재: 재료, 창: 벽과 창호, 산: 산지가람, 침: 부등침하, 해: 자연재해

11) 장현덕, 앞의 책, 2003, p.147

재료로 바로 잡는 경우이다. 벽체가 파손되어 떨어지거나 창호에 문제가 있는 경우(7건), 산지가람의 특성에 따른 배수 및 배면 석축과 수풀 등의 영향(5건)이 있다. 이 외에 기초부의 부등침하(3건), 수해나 층해 등 자연재해(2), 화재(2)가 이에 해당된다.¹²⁾

[표 4] 공사주기, 원인, 범위 조사표

지정번호	명칭	공사시기	공사원인	해체범위	기타공사	보존개념	
국보 13	무위사 극락전	1942		■			
		1958	침	완전해체		B복원	
		1966		지붕 ↑	단청		
		1974		연목 ↑			
		1978-1979		포부재 ↑			
		1982-1983	부/창	포부재 ↑			A유지
국보 14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1969-1970		기둥 ↑			
		1977-1978		지붕 ↑			
		1987		지붕 ↑			
		1996-1997	지	연목 ↑		A유지	
국보 15	봉정사 극락전	1972-1973	지	완전해체		B복원	
		2001-2003	지/노/재	완전해체		A유지	
국보 18	부석사 무량수전	1916-1919		완전해체			
		1969		연목 ↑		A유지	
		1999-2000		지붕 ↑		A유지	
국보 19	부석사 조사당	1916-1919		완전해체			
		1985			기타		
		1996-1997	지/산	지붕 ↑	단청	B복원	
		2005		대량 ↑		A유지	
국보 49	수덕사 대웅전	1935-1940		완전해체		B복원	
		1964		■			
		1994			기타		
국보 50	도갑사 해탈문	1971		■			
		1975-1976		지붕 ↑			
		1988		지붕 ↑			
		1995	지	지붕 ↑		A유지	

12) 화재로 인해 쌍봉사 대웅전과 금산사 대적광전이 화재에 의해 소실되었다가 현재는 복원되었다.

44 논문

지정번호	명칭	공사 시기	공사 원인	해체범위	기타 공사	보존 개념
국보 52	해인사 장경판전	1918-1937 (장경)		지붕 ↑	기타	
		1964 (장경)	지	지붕 ↑		A유지
		1978 (법보)		■		A유지
		1982 (장경)			기타	A유지
		1986 (장경)			기타	A유지
		1995-1997 (법보)	지	지붕 ↑		A유지
국보 55	법주사 팔상전	1967-1969	기	완전해체	단청	B복원
		1971			기타	
		1974			기타	
		1996-1997	지	지붕 ↑		A유지
국보 56	송광사 국사전	1919		■		
		1971		지붕 ↑		
		1990-1991	노	도리 ↑		A유지
국보 62	금산사 미륵전	1926		■		
		1938		■		
		1962		연목 ↑		
		1974-1975		연목 ↑		
		1988-1999	노	창방 ↑		A유지
국보 67	화엄사 각황전	1935-1940		■		
		1966-1968		지붕 ↑		
		1999-2000	지	지붕 ↑		A유지
국보 290	통도사 대웅전	1975			기타	
		1978			기타	
		1981		지붕 ↑		
		1996			기타	
		2000		■		
보물 55	봉정사 대웅전	1963		지붕 ↑		
		1975		지붕 ↑	단청	
		1996			단청	
		1999-2002	지/기	연목 ↑		A유지

지정번호	명칭	공사 시기	공사 원인	해체범위	기타 공사	보존 개념
보물 143	개심사 대웅전	1941-1945		■		
		1955		완전해체		
		1962		지붕 ↑		
		1966		지붕 ↑		
		1972-1974		포부재 ↑	단청	
		1979-1980			기타	
		1987-1988	해	지붕 ↑		A유지
보물 145	용문사 대장전	1972		포부재 ↑		
		1990			기타	
		1993			기타	
		1996-1997	지/창	지붕 ↑		
보물 146	관룡사 약사전	2001-2004	침	완전해체		
		■		■		
보물 161	정수사 법당	1957	노	■		
		1969-1970		지붕 ↑	단청	
		1972		지붕 ↑		
		1988		지붕 ↑		
		1991			단청	
		1996		지붕 ↑		
보물 162	장곡사 대웅전	2003-2004	부/기	완전해체		A유지
		1969		■		
		1970			단청	
		1996-1997	재		기타	
보물 164	청평사 회전문	1936-1937		■		B복원
		1963		지붕 ↑		
		1969-1970, 72, 73		연목 ↑		
		1978		연목 ↑		
		1996-1997	지/재/창		기타	
보물 178	전등사 대웅전	1915-1916		■		
		1971			단청	
		1972			기타	
		1978		지붕 ↑		
		1968		도리 ↑	단청	
보물 179	전등사 약사전	1971			단청	
		1985		■		
		1993	지/기	지붕 ↑		A유지
		1972		지붕 ↑		
보물 180	신륵사 조사당	1983		지붕 ↑		
		1996			단청	
		1996			단청	

지정번호	명칭	공사시기	공사원인	해체범위	기타공사	보존개념
보물 181	장곡사대웅전	1966		지붕 ↑		
		1971-1972		포부재 ↑	단청	B복원
		1989		지붕 ↑		
보물 212	관룡사대웅전	1965		창방 ↑	단청	
		1978-1979		지붕 ↑		
		1988		지붕 ↑	단청	
보물 242	개목사원통전	1969-1970		기둥 ↑		
		1995-1996		지붕 ↑		
보물 263	송광사하사당	1925		■		
		1964-1965		지붕 ↑		
		1976		지붕 ↑		
		1981		■		
		1983		연목 ↑		
		1999		지붕 ↑		
보물 290	선운사대웅전	1973-1974		포부재 ↑	단청	B복원
		1992	지	지붕 ↑		
		2000			기타	
보물 291	내소사대웅보전	1977		지붕 ↑		
		1985		■		
		1991-1992		지붕 ↑		
보물 292	개암사대웅전	1966		지붕 ↑		
		1975-1978		지붕 ↑		
보물 299	화엄사대웅전	1969-1970		지붕 ↑		
		1974-1975		지붕 ↑	단청	
보물 302	송광사약사전	1997-1998	지/재	연목 ↑		
		1974		지붕 ↑		
보물 303	송광사영산전	1997-1998	지/부/재	연목 ↑		
		1932		■		
보물 356	무량사극락전	1966-1969		지붕 ↑		
		1971			단청	
		1981-1983		포부재 ↑		
		1992	지	지붕 ↑	단청	
		1996		지붕 ↑		

지정번호	명칭	공사시기	공사원인	해체범위	기타공사	보존개념
보물 374	울곡사대웅전	1964		지붕 ↑	단청	
		1976		지붕 ↑	단청	
		1986	지	지붕 ↑		
		1990	지/재/창	연목 ↑		A유지
		1997	지/노/창	지붕 ↑		
		2000			기타	
		2001			기타	
보물 396	흥국사대웅전	2002-2003	부/기/노/침	완전해체		B복원
		1970		■		
		1970-1972		지붕 ↑	단청	
		1988	지/기	지붕 ↑		
보물 399	흥성고산사대웅전	2002	지/산		기타	
		1973		■		
		1974		지붕 ↑	단청	
		1990		지붕 ↑		
		1998			단청	
보물 408	쌍계사대웅전	2000		지붕 ↑		
		1972		지붕 ↑		
		1973			단청	
		1993		지붕 ↑	단청	
보물 434	범어사대웅전	1997-1998	노	■		
		1969		지붕 ↑		A유지
		1987		지붕 ↑		
보물 448	봉정사화엄당	2002			기타	
		2003-2004	지/부	연목 ↑	단청	A유지
		1969		■		
보물 449	봉정사고금당	1970		종량 ↑	단청	
		1971		■		
보물 500	쌍계사대웅전	1981-1982		연목 ↑		
		1987			기타	
		1989-1990	창		기타	
		1991-1992		지붕 ↑		
		1998	부		기타	
		2004-2006		기둥 ↑		
보물 562	환성사대웅전	1973-1974		■		
		1987		■		
		1993		지붕 ↑		
		1997	지/기	지붕 ↑		

지정번호	명칭	공사시기	공사원인	해체범위	기타공사	보존개념
보물 608	위봉사 보광명전	1978-1979		포부재 ↑		
		1986		지붕 ↑		
		1989-1990	지	지붕 ↑		A유지
보물 662	화암사 우화루	1981-1982		포부재 ↑	단청	
		1989		지붕 ↑		
		1999-2000			기타	
보물 663	화암사 극락전	1967		■		
		1991-1992		지붕 ↑		
		2000-2004		포부재 ↑		
보물 664	안심사 대웅전	1976		지붕 ↑		
		1979		포부재 ↑		
		1989	부	연목 ↑		
보물 730	불영사 응진전	1970-1971		지붕 ↑		
		1984	지/기/재	지붕 ↑		
		1998		지붕 ↑		
보물 790	은해사 백암전	1969		지붕 ↑		
		1975		기둥 ↑	단청	
보물 800	마곡사 영산전	1994	재/창	도리 ↑		
보물 801	마곡사 대웅보전	1979-1980		지붕 ↑		
		1986-1987	지/부/재	지붕 ↑		
		1993		지붕 ↑		
보물 802	마곡사 대광보전	1992	지	지붕 ↑		
		1993-1994			기타	
		1998-2000	재		기타	
보물 803	선운사 참양암전	1983		포부재 ↑		
		1997	지/부/산	지붕 ↑	단청	
보물 804	장혜사 대웅전	1940	지	■		
		1962	지	지붕 ↑		
		1986		연목 ↑		
		1999-2000	노	평방 ↑		
보물 805	복지장사 대웅전	1994			단청	
보물 823	석남사 영산전	1997	산	지붕 ↑		
보물 824	청룡사 대웅전	1993	지	지붕 ↑		

지정번호	명칭	공사시기	공사원인	해체범위	기타공사	보존개념
보물 825	송림사 보광전	1912		■		
		1965		■		
		1991		지붕 ↑		
		1996			기타	
보물 826	귀신사 대적광전	2001-2002	부/기/노/ 재/해	평방 ↑		
		1927		■		
		1934		■		
		1970		■		
		1983		기둥 ↑		
		1992-1993	지/기	지붕 ↑		B복원
보물 827	금산사 대장전	1999			기타	
		2003	기	완전해체		A유지
		1919-1927		■		
보물 830	불갑사 대웅전	1982		기둥 ↑	단청	
		1987	지	지붕 ↑		
		1994-1995			기타	
		1998-1999	지/재	지붕 ↑		A유지
보물 832	성혈사 나한전	2002-2004		연목 ↑	단청	B복원
		1984		■		
보물 833	기림사 대적광전	1996		■	기타	
		1978	지	지붕 ↑		
		1989	지	지붕 ↑		
보물 834	대비사 대웅전	1996-1997	부/기/노/ 창/재	완전해체	단청	A유지
		1979		지붕 ↑		
		1986	재		단청	
		1993-1994			기타	
보물 835	운문사 대웅보전	1997	지	지붕 ↑		
보물 836	대적사 극락전	1978		지붕 ↑		
		1987		지붕 ↑		
보물 915	법주사 대웅전	2004	기/재	완전해체		A유지
		1927		■		
		1965-1967		■		
		1976		■		
		1986		■		
		1996-1997		지붕 ↑	단청	
보물 916	법주사 원통전	2001-2005		기둥 ↑	단청	
		1974		지붕 ↑		

지정번호	명칭	공사 시기	공사 원인	해체범위	기타공사	보존개념
보물 947	미황사 대웅전	1982		■		
		1991	노/재		기타	
		1993			기타	
보물 1120	양산 신흥사 대광전	1988-1989	산	도리 ↑		B복원
		1995		지붕 ↑		
보물 1183	미황사 응진당	1982		■		
		1995-1996	노/산		기타	
		1999-2001	부	평방 ↑		
보물 1201	불영사 대웅보전	1994			단청	
		1996			단청	
보물 1243	완주 송광사 대웅전	1979		지붕 ↑		
		1990	기	지붕 ↑		
		1998			기타	
		2001-2002	기	완전해체		B복원
보물 1244	완주 송광사 종루	1983		연목 ↑		
보물 1300	해인사 홍제암	1938	부	■		
		1977-1979		완전해체		B복원
보물 1307	능가사 대웅전	2000		완전해체		
보물 1310	나주 불회사 대웅전	1992	지	지붕 ↑		
보물 1311	나주 선암사 대웅전	1974		지붕 ↑		

2-2. 공사주기와 비용 및 부재교체율

최근 100년간 한 건물 평균 3.7회의 해체보수공사가 있었다. 그중에서 한 번도 공사가 없었던 건물은 1동이고, 가장 많은 공사가 있었던 건물은 7건의 공사가 있었다.¹³⁾

보수공사 주기는 기후·자연재해 및 인재·입지·지역 등 환경적요인, 건물자체의 구조와 규모, 재료 등에 따라 다르다.

가장 빈번한 교체주기를 보이는 것은 앞 절의 내용과 같이 지붕공사가 가장 짧은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

13) 관룡사 약사전은 정확한 보수기록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붕공사의 경우는 통상 20~30년의 주기, 목구조는 100년의 주기가 있다고 주장되기도 했다.¹⁴⁾ 실제로는 평균 12.8년의 주기로 진행되었고, 1960년대 이후만을 조사한 결과는 평균 11.7년의 주기로 공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⁵⁾ 196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지붕공사만을 확인한 결과는 2년에서 31년 사이에 한번 공사가 있었다.¹⁶⁾

해체보수공사에서 부재의 교체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내역을 실은 수리보고서는 거의 볼 수 없었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되었던 법주사 대웅보전 보수공사의 경우 기록이 있어 본문에 포함한다.<표5>

[표 5] 법주사대웅보전 부재교체율

분류		교체율(%)
목재	상층	72
	하층	76
	평고대, 연합	100
기와		89
철물		100

14) 김동현, 목조건축의 수리, 문화재보수기술교재, 문화재관리국, 1985, p.74

15) 보수공사의 주기계산방법은 <표4>를 근거로 하였다. 실제 이루어진 보존공사의 내용을 참조하여 <표 2, 3, 4, 6>의 내용을 하나의 표로 조사·정리하였으나 내용설명과 지면관계상 각각의 표로 나누어 간략하게 기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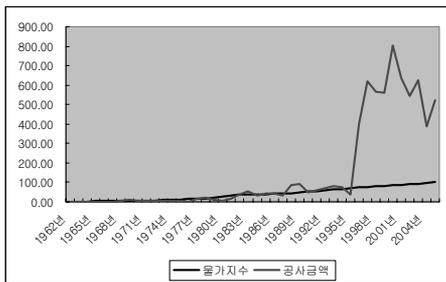
지붕공사의 주기는 예를 들어 무위사 극락전의 경우 <표4>에서 해체범위를 모르는 1942년의 공사를 제외하고 1958년, 1966년, 1974년, 1978년, 1982년의 공사 간격은 각각 8년, 8년, 4년, 3년이 된다. 즉 지붕공사는 지붕 이하의 부재들을 해체하려면 기와를 해체하여 두고 지붕공사를 해야 하고, 이러한 해체공사 과정에서 기존기와의 체사용율이 100%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표4> 해체범위가 정확히 기재된 지붕↑, 연목↑, 도리↑, 대량↑, 창방↑, 평방↑, 포부재↑, 기둥↑, 완전해체간의 주기를 정리하였다.

16) 기와 자체에서 동과가 발생하지 않고 시공도 원칙적으로 잘 이루어졌을 때 기와지붕의 수명은 통상 20~30년의 주기를 보인다. 하지만 기와를 부분적으로 수리한 건물이나 KS기와를 처음 생산할 당시에는 동과율이 심해 1~5년 이내에 재시공한 경우도 있다.

법주사 대응보전은 상하층 전면해체를 한 경우로 상·하층 목부재 교체율은 약 70%, 기와 89%, 철물 100%임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교체율이 높은 것은 단순히 법주사 대응보전 보수공사만이 아닌 다른 건물들에서도 해체범위가 늘어날수록 구부재 활용정도는 감소하고, 특히 우수와 기후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기와나 평고대, 연합은 교체율이 90~100%에 가깝다.¹⁷⁾

단청공사는 건물의 외관과 미를 좌우하는 중요한 작업으로서, 원래의 색과 문양의 흔적을 조사하여 복원하는 단청이 있고, 옛 질감을 나타낼 정도로 고색칠로 마무리 하는 경우가 있다. 단청공사는 80동의 연구대상 중 집계된 것만 50건 정도가 단청을 다시 칠한 것이었다. 그러나 단청과 불교 의장·장엄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므로, 80동 중 66동의 건물이 보수공사가 있었던 것을 참고하면, 단청공사도 거의 대부분 건물에서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집계된 주기는 최소 2년 최대 24년이고, 주기를 파악할 수 있었던 29동은 평균 16.3년으로 단청공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의 대상이 된 80동의 연간 보존공사금액은 1962년 자료부터 확인 할 수 있었다. 변동 폭을 알아보기 위해 물가지수의 상승폭과



<그림 2> 보존공사금액과 물가지수 비교

17) 문화재청, 법주사 대응보전 실측·수리보고서(上), 2006, p.85~88.

비교해 볼 때 비슷하게 상승하다가, 1997년에 70억원정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 이때는 ‘문화유산의 해로’서 전반적인 문화재관련예산이 상승한 시기에 해당한다. <그림2>

3. 보존공사의 개념

3-1. 현상변경과 원형유지보존

해체보수공사는 조립순서의 반대로 해체하여 변형된 부재를 바로잡고, 부식·충해 등으로 인해 구조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부재를 보강하거나 신재로 교체하고 재조립하는 방법이다. 부재 하나하나를 해체하였다가 원래의 상태로 다시 조립하면서 건물의 상태를 건강하게 되돌리는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건물속의 수많은 역사적 자료들을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건물에 직접 근접하여 기와, 기와 속 지붕의 숨겨진 흔적들, 곁에서 보이지 않았던 맞춤·이음부분의 형태, 치목가공방법, 건물의 연혁 등 건물 속에 숨겨진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해체했다가 조립하는 보수과정에서 문화재의 재료적 진정성을 점차 잃어 갈 수 있는 단점이 있다.¹⁸⁾ 따라서 보존공사의 개념에 따라 현상변경과 원형유지보존으로 나눌 수 있다.

현상변경은 현재 공사관계자의 판단에 따라 후대에 내려오면서 변형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창건당시의 모습내지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어느 일정한 시기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수리방법이다. 해체 공사 중의 자료들이 현상변경의 근거가 된다.

원형유지보존은 해체공사를 통해 다양한 자

18) 현상변경과 유지보존의 두 요소가 한 건물에 동시에 나타나는 공사도 있었으나 소수이고 기준이 모호하여 본 논문에서는 생략하였다.

료를 파악하였으나 건물의 역사성을 존중하여 보수공사 직전의 상태와 같이 유지·보존하여 보수하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해체 공사과정에서 창건당시와 크게 달라진 흔적이 없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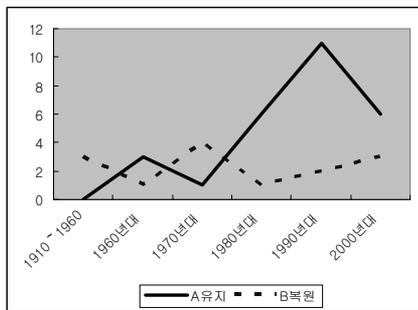
이외에 단청도 현상변경에 속한다. 특히 원래의 문양과 색깔을 찾아 다시 색을 입히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3-2. 보존개념의 시대적 변화

1900년 이후 시행된 불교건축문화재의 보수내용을 통해 시대별 원형유지보존과 현상변경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표6>

[표 6] 시기별 보존유형

시기	A유지	B복원
1910~1960	0	3
1960년대	3	1
1970년대	1	4
1980년대	6	1
1990년대	11	2
2000년대	6	3
계	27	14



<그림 3> 시기별 보존유형 그래프

현상변경 여부를 알 수 있는 41건의 공사를 토대로 조사하였다. 1960년대 이전은 현상변경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1960년대 초~70년대는 현상변경과 원형유지의 수치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 들어서면서는 원형유지가 압도적으로 많다가 1990년대 말

이후 서서히 하락한 모습이다. 현상변경은 1970년대 말 이후 아주 줄어들었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약간 늘어나는 추세이나 현상유지에 비해 작은 수치이다.

이러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현상변경과 유지보존에 대하여 3시기로 나누어보았다.

첫 번째는 1900년대 초부터 1960년대 이전까지로 현상변경이 나타난 시기, 두 번째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 말까지로 현상변경과 유지보존이 대조를 이루며 함께 나타난 시기, 세 번째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로 원형보존이 현상변경보다 월등히 많이 나타나는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현상변경과 유지보존 두 가지의 보존개념이 시대별로 변화를 나타내는 이유는 첫째 대상의 수리이력, 둘째 관련 제도와와 외부요인, 셋째 공사담당자의 기준, 넷째 건축역사연구와의 관계가 그 요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다음 장에서 이 4가지 측면에 대해 고찰한다.

4. 보존개념변화의 요인 고찰

4-1. 대상의 수리이력

<표6>의 결과에서 1970년대 말 이후 유지보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원인 중 하나를 대상의 수리이력과 관계에서 고찰해보았다.

보수공사에서 현상변경을 하는 근거는 이전 수리에서 대상이 원래의 상태에서부터 변형되었다는 상황이 전제한다. 따라서 보수공사를 통해 현상변경을 하여 일정한 수준으로 복구시키는 복원 즉 현상변경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복원을 한 뒤로는 더 이상 현상변경을 하지 않고, 그 상태로 유지보존하게 된다. 따라서 1970년대 말을 기점으로 1980년대 이후가 되

면 1차 복원공사는 거의 끝나는 시점이 되므로 유지보존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한다.¹⁹⁾

봉정사 극락전의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그림 4> 봉정사 극락전 수리전



<그림 5> 봉정사 극락전 수리후

봉정사 극락전은 완전해체공사가 1972년부터 1973년에 한차례, 2001년에서 2003년에 한차례 있었다. 1970년대 공사에서는 대대적인 현상변경이 있었다.<그림4,5>²⁰⁾ 지붕, 바닥,

19) 여기서 다양한 용어가 나오는데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 명확히 정의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임의로 선택한 용어들에 대하여 약간의 정리를 하고자 한다. 보존공사는 현상변경과 원형유지보존공사를 포함한 모든 보수공사를 의미한다. 현상변경을 복원으로도 표현하였다. 복원은 건물의 터만 남아 있는 곳에 다시 건물을 짓는 것을 복원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필자는 앞의 경우는 복원보다는 재현 내지는 재건·중창등과 관련된 의미의 단어가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상변경이 이루어지는 보수공사가 복원이라는 단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복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20) 문화재관리국, 봉정사 극락전, 1992

입면 등의 변화가 그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2001년의 공사에서는 이전의 공사에서 일정한 시대의 형태로 현상변경을 하였으므로 더 이상 현상변경은 필요 없게 된다. 따라서 해체범위는 같았지만 유지보존개념의 공사를 한다.

무위사극락전의 경우도 그러한데 1942년 공사에서 지붕기와의 보충이 어려워 함석판으로 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1958년 공사에서는 이 함석판을 제거하고 다시 기와지붕으로 이고 마루형태를 복원하였다. 그 뒤 지금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며 수리해오고 있다.

4-2. 관련제도와 외부요인

현상변경과 유지보존에 영향을 준 두 번째 요인을 국내와 국외의 관련제도에서 고찰해

그림4,5는 1972년부터 1973년까지 있었던 봉정사극락전의 수리전과 후의 사진을 보고서에서 발췌하였다. 입면에서 현상변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 이러한 현상변경공사에 대해 참고할만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첨부한다.

-李相海, 건축역사 문화 환경의 보전과 복원의 과제, 문화재 26, 문화재연구소, 1993.

건축문화재의 복원이란 곧 원래(原來)의 모습대로 회복(回復)하는 것을 뜻하는데, 그렇게 회복하려면 그 원형(原形)에 대한 철저한 파악(把握)이 전제(前提)되어야 한다. 현시점에서 원형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없으면 차라리 정확한 기록을 남겨 보존하는 것이 오히려 최선책이다. 과거 어느 시기에 있었을 법한 이상적(理想的)인(ideal) 모습을 추정하는 것과 어느 특정건물의 실제적(實際)인(real)인 모습을 파악하는 것을 우리는 구분해야 한다. 그 시기에 있었음직한 이상적인 표준형을 만들어내는 것은 문화재복원이 아니다.

좀 더 비약한다면 엄격한 의미에서 목조건축(木造建築)의 복원(復元)은 실제로 가능한 행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재검토 해보아야 한다. 극락전 해체 수리 결과에 대하여 생각해보아야 할 또 다른 한 부분이 있다. 진여문, 우화루에 의하여 대웅전, 극락전 두 구역이 구분되는 독립된 성격은 완전해지지만 건물사이 공간의 연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은 텃마루이다. 사실 복원된 지금의 극락전은 고급당과 함께 봉정사 배치에서 얻을 수 있는 건축형식의 흐름과는 궤를 달리하며 낯설게 들어서 있는 건물과 같다는 인상을 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대웅전이 해체수리 되면서 대웅전 앞 텃마루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수리된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내용이기도 하다.

보았다.

국내요인은 문화유산관련법규와 지방서의 영향이 요인이라고 판단한다. 일제시대의 사찰과 문화유산 관련 제도만을 보아서는 현상변경과 유지보존의 근거가 될 만한 것을 찾을 수 는 없었다. 그러나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는 시기의 현상변경감소와 유지보존 증가의 특징이 보이고, 1984년 문화재보호법이 대대적으로 변화하는 사이의 시기를 기점으로 현상유지가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1984년 문화재보호법부터는 원형유지를 문화재보호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표7>²¹⁾

[표 7] 불교건축문화재의 내용을 포함한 관련 법규와 제도

시기	내용
1902년	국내사찰현행세칙
1911년	사찰령
1916년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
1933년	조석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1974년	문화재수리표준지방서
1982년	문화재수리자격제, 원형보존
2000년	문화재의 보존관리 활용원칙 법제화
2001년	문화재수리공사 평가제도
2005년	지방서변경

이러한 관련 제도나 지방서가 실제 보존공사의 개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당시의 시대적 흐름과 보수공사의 개념변화가 어느 정도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은 확인하였다.

국외요인은 1964년 베니스헌장²²⁾, 1994년

나라도큐먼트²³⁾가 공사개념과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베니스헌장은 문화유산의 진정성을 강조한 헌장으로 이 무렵과 1960년대의 보존개념에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시기는 유지보존이 복원보다 많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유지보존이 약간 줄어들고 현상변경이 늘어나는 것은 1994년 나라도큐먼트에서 목조건축의 특성상 유지관리를 하는 방법은 석조나 벽돌조 건축물과는 다르게 다양한 국가의 전통적이며 다원화된 보존방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4-3. 공사 담당자의 기준

일제시대의 보수공사는 대부분 일본인과 일부 한국인의 공사 참여에 의해 진행되었다. 당시 공사와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의 좌담회 내용을 통해 단편적이거나 당시의 개념을 알아볼 수 있다.²⁴⁾ 이 좌담회에서는 Restoration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이것은 보수공사의 현상변경, 즉 일정한 시기로 복원하여 보수하는 것을 나타낸다. 일제시대에 있었던 수리공사가 현상변경이 많았던 것도 이러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한다.²⁵⁾

23) The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 1994

24) 朝鮮建築會, 朝鮮と建築 -朝鮮古建築保存に關する座談會 제10집 제5호, p.12., 1931 池田賢太郎(조선건축회 회장), 岩槻善之(조선총독부기사), 李昌根(조선총독부종교과장), 小田省吾(경성제국대학 교수), 小川敬吉(조선총독부 박물관), 加藤濯覺(조선총독부 촉탁), 中村誠(조선식산은행기사), 山形靜智(경성고등공업학교교수), 藤田亮策(경성제국대학 조교수), 末松熊彦(이왕직 서무과장), p.2~20

25) 朝鮮建築會, 앞의 책, p.18에서 中村誠은 보존공사에 대하여 何時でもレストレーションして、出来るだけのことはしておきたいね。(하시라도 Restoration하여 가능한것은 해두고 싶군.)라고 하여 Restoration을 복구의 의미를 내포한 복원(현상변경)이라는 단어로 사용하였다.

21) 표7은 강현, 앞의 책, 2005의 논문을 통해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내사찰현행세칙, 청구기호 古294.35951-G993gw 의 자료여부를 확인하여 참고하였고, 나머지는 조현정, 앞의 책, 2005 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22) The Venice Charter - International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onument and Sites, 1964

일제시대에 참여했던 일부 한국인이 광복이 후에도 보수공사에 참여하는데 일제시대 보수 개념이 1960년까지 이어온 것으로 추정한다.

동시에 당시 옛 시대를 생각하지 않고 Restoration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염려와 이러한 원인은 기술자 부족 때문이므로 기술자를 양성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²⁶⁾

4-4. 건축역사연구의 관계

마지막으로 건축역사연구의 동향과 보존공사개념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 접근해보았다.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100년간의 건축사학 발자취를 크게 세 가지 시점으로 나누어 설명한 견해가 있다. 1930년 전후시기, 1970년대 1990년 전후시기이다.²⁷⁾

첫 번째 시기는 일본인에 의해 이루어진 유적조사와 연구로 유적의 형태분석과 편년설정 등 실증적인 것에 집착한 것을 볼 수 있다. 보수공사에서도 이 시기 현상변경, 즉 일정한 시대의 건물로 보수하는 것이 많은 것은 이러한 편년설정의 관점과 관계가 있다.

두 번째 시기는 1970년대로 정부주도로 적극적으로 유적의 복원과 정비가 이루어져 학술연구 보다 과다한 사업진행으로 학술적 연구 성장을 할 여유가 없었다고 한다. 1960년대 유지보존이 많다가 1970년대에 현상변경이 많아지는 이유도 이러한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제시대의 기술자부족 문제와 마찬가지로 학술적인 방향성을 갖고 유지보존이 꾸준히 증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26) 朝鮮建築會, 앞의 책, p.12, 中村의 발언

27) 김동욱, 한국건축사연구1-20세기 건축사학의 전개, 2003, p.53~56
여기에 기재된 건축사학 동향을 근거로 건축문화재보존개념의 경향과의 관계를 대조해보았다.

세 번째 시기인 1990년대 이후는 연구자의 급증, 다양한 연구방법과 주제접근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건축의 유지보존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즉 다양한 역사적 자료가 존중되는 것은 다양한 관점의 건축역사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5. 결론

역사상 가장 잦은 공사가 일어난 시기가 바로 ‘현대’라고 할 수 있다. 물질적인 여유와 대상물의 가치변화, 재료와 물자의 수급이 용이한 시대가 된 것이 빈번한 공사의 요인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최근 100년간 목조불교건축의 보존공사와 공사개념 및 개념변화의 요인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꾸준한 관리와 해체보수공사를 통해 목조건축은 유지되어왔다. 이러한 해체공사주기와 해체범위 및 주요 손상원인에 대한 고찰 결과, 재료의 수명연장과 교체된 부재의 보존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맞게 된다. 왜냐하면 12.8년이라는 지붕공사주기, 16.3년의 단청공사, 해체공사에서의 높은 부재교체율은 건물의 재료적 진정성을 점차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목재의 유기적인 특성상 누수 등의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해체공사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마련해야만 또 다른 부재의 손상을 방지한다. 다원화된 각각의 역사적 보존방법을 존중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대의 문화유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역사적 자료들을 보존하게 된 경위를 생각한다면, 건축 역사의 다양한 증거자료인 원래 재료·부재의 보존에 대하여 조금 더 관심을 갖아야 한다.

특히 지붕 문제로 보존공사가 가장 많았던 것을 확인하였다. 불교건축은 아니지만 경복궁

근정전과 같이 지붕에 적심을 넣는 대신 덧집을 짓는 경우는 일시적인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기술적, 재료적, 내부 의장적 진정성에 대한 논의 대상이 되었으며 항구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다. 귀신사대적광전과 같이 무게를 줄인 기와를 따로 제작하여 수리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적이고 단발적인 대처보다는 근본적으로 기와와 지붕의 시공과 보존방법의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KS기와가 강도는 높으나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단점을 파악하였으나, 기와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는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단청의 경우도 옛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방법과 재료의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양식과 문양위주의 연구에 치중해 있으나, 재료나 보존방법 등 보다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²⁸⁾

목재의 보존에 대하여도 많은 고민이 있어야겠다. 목재자체의 보존방법과 교체된 부재의 보존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사찰 내 혹은 주변에 창건초기의 부재라던가 오래된 부재 중 특히 의미 있는 부재는 보관, 전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보존공사의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원형복원과 현상유지가 있었다. 원형복원과 현상변경의 시대적 현상을 관련제도, 담당자, 시대상황, 건축역사연구의 대상과 방법에 대한 측면에서 고찰해 본 결과 3시기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1960년 이전, 두 번째는 1960년에서 1970년 말, 세 번째는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이다.

1960년대 이전은 현상변경이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일제시대의 공사담당자가 일본인이며, 이들의 현상변경(Restoration)을 염두한 보존

개념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경향은 1960년 무렵까지 지속된다. 더욱이 이때는 건축사적 연구흐름과 비교할 때도 편년설정의 형식적인 것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경향이 불교건축보존에도 반영되었다고 판단한다.

두 번째 시기인 1960년 이후부터 1970년대 말까지는 현상변경과 원형유지보존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데, 1960년대는 원형유지보존이 우세하고, 1970년대는 현상변경이 우세하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1960년대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의 성립, 1964년 베니스헌장의 문화유산의 진정성에 대한 영향 때문으로 판단한다. 1960년대의 원형유지보존이 꾸준히 증가하지 못하고 1970년대에 현상변경이 우세하게 된 이유는 국가주도의 문화재공사가 급증하는데 반해 학술적인 연구 지원보다는 과도한 사업진행 때문에 연구토대 마련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원형유지보존이 현상변경보다 월등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이유는 대상 건물의 수리이력에서 이미 현상변경방법으로 수리된 건물은 그 이후로 유지보존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구자가 급증하게 되고, 다양한 연구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므로 보존공사도 다양한 자료와 건물의 시간적 축적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유지보존이 줄어들고 현상변경이 증가하는 것은 1994년 나라도큐먼트에서 목조건조물의 해체보수와 목재의 재료로서의 한계성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목조건축의 수리에 있어서 현상변경의 방법과 유지보존의 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느 한 가지를 옳다 그르다

28) 보존과학적 측면에서 단청의 재료에 대해 연구가 진행된 적은 있으나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응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 부분은 보존철학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보다 심도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단, 현재로서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상변경의 경우는 현상변경을 하게 된 경위와 근거가 될 만한 자료 즉, 도면·수리이력·부재의 흔적 등 충분한 사전조사와 확실한 근거를 남기고 현상변경을 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는 결과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건물이 갖고 있는 자료의 중요성은 유지보존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부분이다.

본 연구는 불교문화재 중 국가지정목조건축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모든 목조건조물을 포함하여 조사할 경우 결과 값이 변할 수도 있다. 또한 기록이 있는 부분을 통해 통계치를 냈기 때문에 더욱더 확실한 기록과 자료가 연구되면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족하나마 이러한 지표의 조사방법을 통해 최근 진행된 보수공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연구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는지 인식하는데 고찰의 의미를 둔다.

<참고문헌>

국립박물관, 무위사극락전수리공사보고서, 1958
 문화재관리국, 강진무위사극락전수리공사보고서, 1984
 문화재관리국, 울진불영사웅진전수리보고서, 1984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구례 화엄사 실측조사보고서, 1986
 청도군, 운문사대웅보전 실측조사보고서, 1988
 대구광역시, 북지장사실측조사보고서, 1990
 대구광역시, 북지장사실측조사보고서, 1990

문화재관리국, 봉정사극락전, 1992
 국립문화재연구소, 小川敬吉調査 문화재자료, 1994
 문화재관리국, 신흥사대광전수리보고서, 1994
 문화재청, 통도사 대웅전 및 사리탑 실측조사보고서, 1997
 경주시, 기림사 대적광전 해체 실측 조사보고서, 1997
 문화재관리국, 법주사팔상전수리공사보고서, 1998
 문화재관리국, 쌍계사 대웅전 수리보고서, 1998
 문화재청, 금산사 미륵전 수리보고서, 2000
 문화재청, 불영사 대웅전 실측조사보고서, 2000
 영주시, 부석사무량수전수리보고서, 2000
 창녕군, 관룡사 약사전 실측조사보고서, 2001
 문화재청, 정혜사 대웅전 수리보고서, 2001
 문화재청, 부석사 무량수전 실측조사보고서, 2002
 문화재청, 선암사 대웅전 실측조사 및 수리공사보고서, 2002
 문화재청, 불회사 대웅전 실측조사보고서, 2002
 문화재청 해인사, 해인사 장경판전 실측조사보고서, 2002
 문화재청, 송림사 보광전 수리보고서, 2002
 문화재청 한국건설안전기술원, 흥국사 대웅전 수리보고서-활주구조안전성검토 및 기단마루보수, 2002
 문화재청 해남군, 미황사 응진당 수리보고서, 2002
 덕숭총림 수덕사, 수덕사 대웅전 - 1937년 보존 수리 공사의 기록, 2003
 문화재청, 봉정사극락전 수리실측보고서, 2003
 문화재청, 울곡사 대웅전 해체보수공사 보고서, 2003
 문화재청 강화군, 강화 정수사 법당 실측 수

- 리보고서, 2004
- 문화재청, 불갑사 대웅전 수리보고서, 2004
- 문화재청, 은혜사거조암영산전 실측조사보고서, 2004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범어사 대웅전 수리공사 보고서, 2004
- 예천군, 용문사 대장전 수리보고서, 2004
- 봉정사 대웅전 해체수리공사보고서, 안동시, 2004
- 문화재청, 부석사 조사당-수리실측조사보고서, 2005
- 문화재청 청도군, 대적사 극락전 수리보고서, 2005
- 문화재청, 범주사 대웅전 실측수리보고서, 2005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보수실적(1963-1973), 1974
- 문화재관리국, 74 문화재보수실적, 1975
- 문화재관리국, 75 문화재보수실적, 1976
- 문화재관리국, 76 문화재보수실적, 1977
- 문화재관리국, 77 문화재보수실적, 1978
- 문화재관리국, 78 문화재보수실적, 1979
- 문화재관리국, 79 문화재보수실적, 1981
- 문화재관리국, 81 문화재보수실적, 1987
- 문화재관리국, 82 문화재보수실적, 1987
- 문화재관리국, 83 문화재보수실적, 1987
- 문화재관리국, 84 문화재보수실적, 1987
- 문화재관리국, 85 문화재보수실적, 1987
- 문화재관리국, 86 문화재보수실적, 1987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관리연보, 1988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관리연보, 1989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관리연보, 1990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관리연보, 1991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관리연보, 1992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관리연보, 1993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관리연보, 1994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관리연보, 1995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관리연보, 1996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관리연보, 1997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관리연보, 1998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관리연보, 1999
- 문화재청, 문화재연감, 2000
- 문화재청, 문화재연감, 2001
- 문화재청, 문화재연감, 2002
- 문화재청, 문화재연감, 2003
- 문화재청, 문화재연감, 2004
- 문화재청, 문화재연감, 2005
- 문화재청, 문화재연감, 2006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수리보고서, 1989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수리보고서, 1990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수리보고서, 1991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수리보고서, 1992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수리보고서, 1993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수리보고서, 1994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수리보고서, 1995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수리보고서, 1996
- 문화재청, 문화재수리보고서, 1997
- 문화재청, 문화재수리보고서, 1998
- 문화재청, 문화재수리보고서, 1999
- 문화재청, 문화재수리보고서, 2000
- 문화재연구소, 문화재26, 1993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보수기술교재, 1985
-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내사찰현행세칙, 청구기호 古 294.35951-G993gw
- 朝鮮建築會, 朝鮮と建築, 제10집, 1931
- 김동욱, 한국건축공장사연구, 기문당, 1993
- 杉山信三, 韓國古建築の保存, 1996
- 이명선, 韓國における建築文化財成立過程の研究, 東京大 박논, 2003
- 강현, 일제강점기 건축문화재보존연구, 서울대 박논, 2005
- 조현정, 한국건조물문화재보존사에 관한 연구, 명지대 석논, 2005
- 한국건축역사학회, 건축역사연구1·2, 발언, 2003
- 한국건축역사학회, 한국건축역사학회 창립 10주년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01
- The Venice Charter - International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onument and Sites, 1964
- The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 1994

A study on Conservation Works Trend of Architectural Heritage in Buddhism

Cho, Hyun-Jung

(PHD Student, Tokyo National University of Fine Arts and Music)

Kim, Wang-Jik

(Prof. Myong-ji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conservation works trend since 1900. Objects for study are National Treasures and Treasures in Buddhism, in wooden architecture.

And researched about the factor of conservation works, roof and tile, painting and dissolution conservation works cycle by dissolution, timber change ratio. The factor of conservation works is the most, roof and tile. Conservation works cycle by dissolution is 12.8 years. Painting cycle is 16.3 years.

There are two concepts of conservation works, that is restoration and preservation. There are many restoration before 1960's. To 1960's the preservation to be many to 1970's many Restoration. And since the end of 1970's is Preservation. These reasons are conservation works history of object, the rule for Heritage protection, people on works, and study of architecture. history.

Keywords : Buddhism Architecture, Conservation, Repair, Cultural Heritage of wooden architecture
